

1. 안녕하세요. 《캡션되기》의 구나혜입니다.

2. 투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투어에서 만나게 될 작품들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의해 설치된 작품입니다.

4.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된 건축물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의해 설치 및 제작된 조형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 사이트에 아카이빙 되어 있으며,

오늘 보게 될 작품들 모두 공공미술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오늘 투어에서는 ‘건축물미술작품’을 ‘공공예술조형물’ 또는

‘조형물’ ‘작품’ 등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투어는 ‘공공예술조형물’을 관찰해 온 저의 관점이 담긴 투어입니다.

8. 오늘 저는 매우 주관적인 캡션이 되며,

함께 광명이라는 도시를 돌아다니고 작품과 공공예술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9. 정보의 공유는 작품의 감상과는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10. 그런 이유로 오늘 투어는 작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캡션되기 Closed captioning

4월 26일 금요일 - 10월 25일 금요일
Reasearch, Tour, Book

구나혜

1 TOUR ☐

2 접근하기_김수현 ☐

3 공유 흔적 ☐

<캡션되기>가 프로젝트를 넘어서 내 작업/전시 이/가 될 수 있을까?
Closed captioning

(그럴 필요는 없다)

사진 촬영해 준 홍성우 작가는 사진을 잘 찍는다.
조형물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 걱정했지만
그것이 조형물의 정확한 단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진_홍성우)



1 Tour

생성공간__HORSE

신치현__조각__2014.09.12.

경기 광명시 일직로 17 (일직동, 이케아광명점, 롯데아울렛) ‘이케아 코리아 광명점’



들어가는 곳
Entrance



유니폴로 롯데몰 광명점 1F

<생성공간 Horse>는 2014년에 설치되었으며, 약 10년 정도 설치되어 있던 작품입니다.
오늘 볼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연식을 갖고 있습니다.

(14/277)



한국에 있는 ‘이케아’ 는 모두 목각말의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3/277)



작품명
Dala Horse

작가명
박춘근

규격
1150cm x 1000cm x 650cm

재료
스테인레스스틸, 파란색, 화강석

분류
조각

설치일자
2019-08-31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고개로 602 (고매동, IKEA Korea 기흥점)



표석 전경 전면 전면-좌 후면 전면-우



상세1 상세2 상세3

건물명
IKEA Korea 기흥점

설치기획한 본 미술작품은 스웨덴의 상징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스웨덴의 전통적인 목각예술 배경으로 그 문화적 배경과 한국의 문화적 정서를 지극히 독대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일체미술작품이다. 스웨덴의 전통성을 주된 테마로 설정하여 한국의 배경과 스웨덴의 문화적 함의를 융화적으로 연출한 미술작품이다.

[목록으로](#) [정보수집요청](#)



Dala horse

작가명
박춘근, 이상민

규격
1200cm x 480cm x 250cm

재료
-

분류
조각

설치일자
2019-10-11

주소
부산 기장군 기장을 당사의 52-2



표석 전경 전면 전면-좌 후면-좌 좌측



후면 후면-우 우측 전면-우

건물명
아래어 동부산천

스웨덴 전통말(Dala horse)과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접목하여 서구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미술작품이 갖는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기획한 작품이다

[목록으로](#) [정보수집요청](#)

'기흥점'의 작품 설명을 참고한 이유는 이 작품의 '캡션' 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29/277)



저희는 '롯데몰' 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롯데몰에는 총 5개의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5/277)

저희는 (롯데몰의)옥상 정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7/277)

어려운 접근성을 가진 위치의 조형물을 공공예술 조형물로 바라봐도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54/277)



클로와 몽이의 달콤한 산책

노준__조각__2014.11.18.

경기 광명시 일직로 17 (일직동, 롯데아울렛)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

큰 노란 캐릭터가 ‘클로’이고 옆의 작은 캐릭터는 ‘몽이’입니다.

(76/277)



조경을 조성해 놓기 때문에 캡션이 있더라도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 위치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277)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법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규제라는 지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56/277)



to the sky

이민수_조각_2018.09.10.

경기 광명시 일직로 28 (일직동, 트리플타워) ‘광명역 트리플 타워’

광명역 인근의 조형물을 서치 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포털(<https://www.publicart.or.kr>)’ 을 활용하였는데요.

(93/277)



S&T SPORTS

한라영어학원 02-991-0333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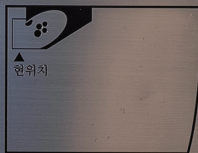
한라영어학원 한라영어학원 한라영어학원

제한늘

근처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점 그리고 주차장 입구와 가깝다는 점은
‘무엇’을 보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277)

이런 설치를 통해 건물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277)



열린공간

[공개공지]

공개공지면적 : 367.98㎡

PUBLIC OPEN SPACE

여기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입니다.

TRIPLE
광명 트리플 타워

BROW ARTIST

TOTAL BEAUTY SHOP

만남의 광장

김경민 조각 2017.06.26.

경기 광명시 일직동 509-1 '효성해링턴타워 The first'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미술작품 설치가 특정 작가에게 집중되는 점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120/277)

장부기장
양도
상속증여
기업잔단
세금신고
조세불복

부동산 컨설팅
경매

가을제과

DESSERT SHOP

라바
바게트
빵

유도용 두버스

가을제과
가을제과
가을제과



(건물주)개인이 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가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한 방법인데요.

(123/277)



건물의 뒤편이나 바로 옆에 위치하면 자연스럽게 흡연구역이 되거나,
쓰레기장과 가까워지곤 합니다.

(127/277)



Rainbow Garden(무지개 정원)

최원순 조각 2019.04.15.

경기 광명시 일직고 12번길 24(일직동) 광명 클래식아 오르세움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앞이 도로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일 경우,
원활한 보행자의 이동과 건물의 출입을 위해 외부에 조형물은 구석으로 몰리게 됩니다.

(136/277)

전원 **양족발&보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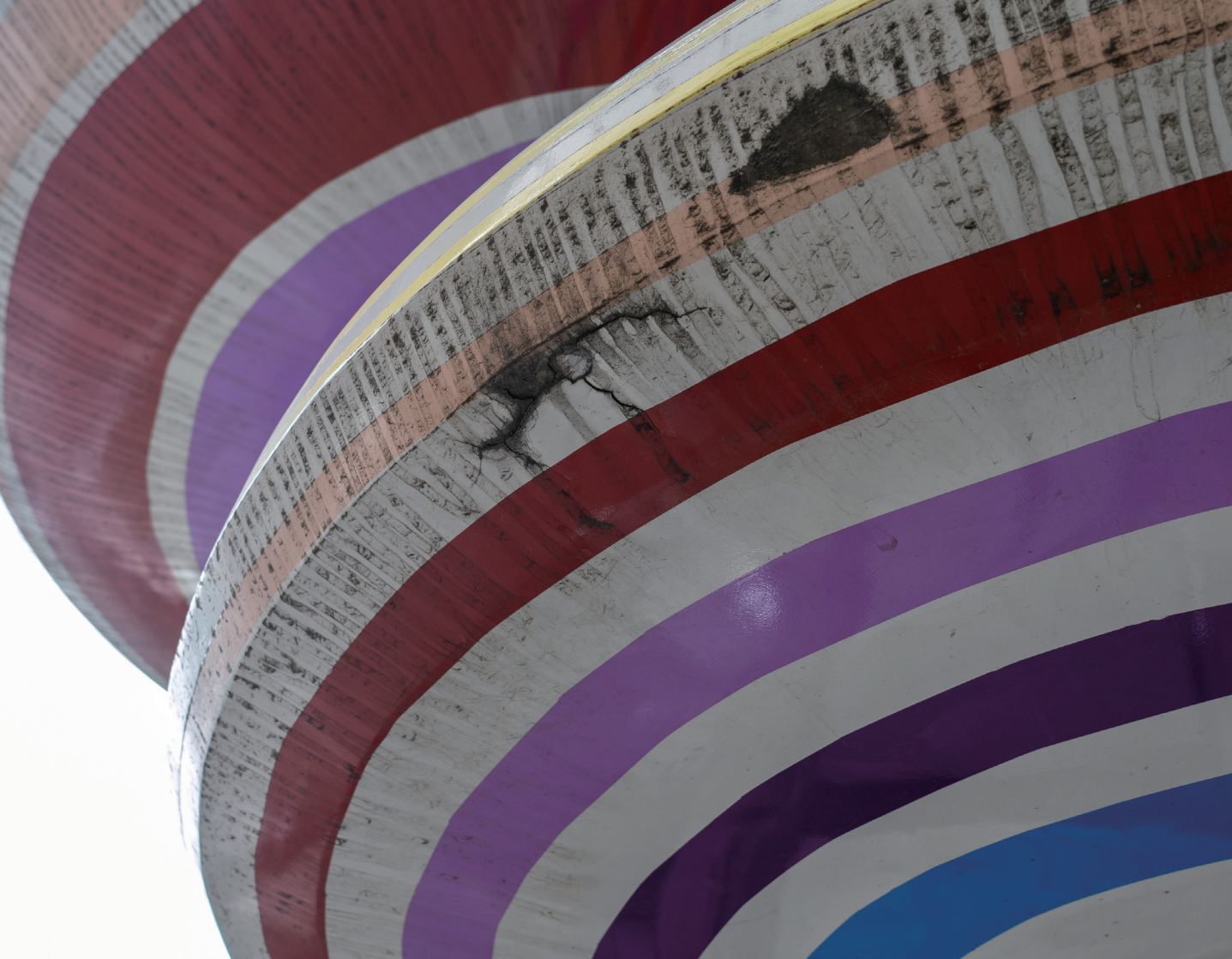
WELCOME
OPEN 11:00
CLOSE 01:00

양족



작가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후 일반적으로 약 2년간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작품 계약 당시 협의 계약합니다.

(142/277)



...건축물의 거래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에 대한 이해는 더욱 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45/277)



동물풍경

권석만 조각 2019.11.26.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 '광명역세권 U플래닛 데시앙'

석조는 공공예술에서 자주 보이는 재료/방식입니다.

(151/277)



이 작품을 투어에서 선택한 이유는 아파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158/277)

...하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161/277)



‘유플래닛’ 은 긴 제작 기간과 예산 그리고 기획을 통해 설치 및 제작된 건축물 미술작품들이 있습니다.
(164/277)



라이트 스피어(Light Sphere)

AVPD_조각_2021.06.14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재미있는 부분은 바람이라는 외부 자연환경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웬만한 미디어 작업보다 활동적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78/277)



움직임을 도와주는 경첩은 세밀하게 연결되어,
외부에 놓여 있지만 지금까지도 바람에 따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175/277)



날씨 걷기(Weather Walking)

홍승혜 조각 2021.06.14.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입자가 서로 뒤섞이며 부드러운 대기를 만드는 과정을
3개의 타일 정렬의 변화로 보여줍니다.

(180/277)



보행자의 진입에 맞춰 작품이 바닥에 있는 부분을 통하여
건축과의 연결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184/277)



하지만 약 3년이 지난 지금, 많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7/277)



오늘.지금.달(today.now.moon)

이동훈_조각_2021.06.21.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오늘 지금 달>은 다회의 방문 동안 매번 작동되고 있었으며,
오전과 오후의 달의 변화와 차이가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194/277)



Ta

의원직



미디어 작업이지만 처음에 언급했다싶이 오늘 투어에서 보게 될 모든 작품은
(공공미술포털 상에서) ‘조각’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6/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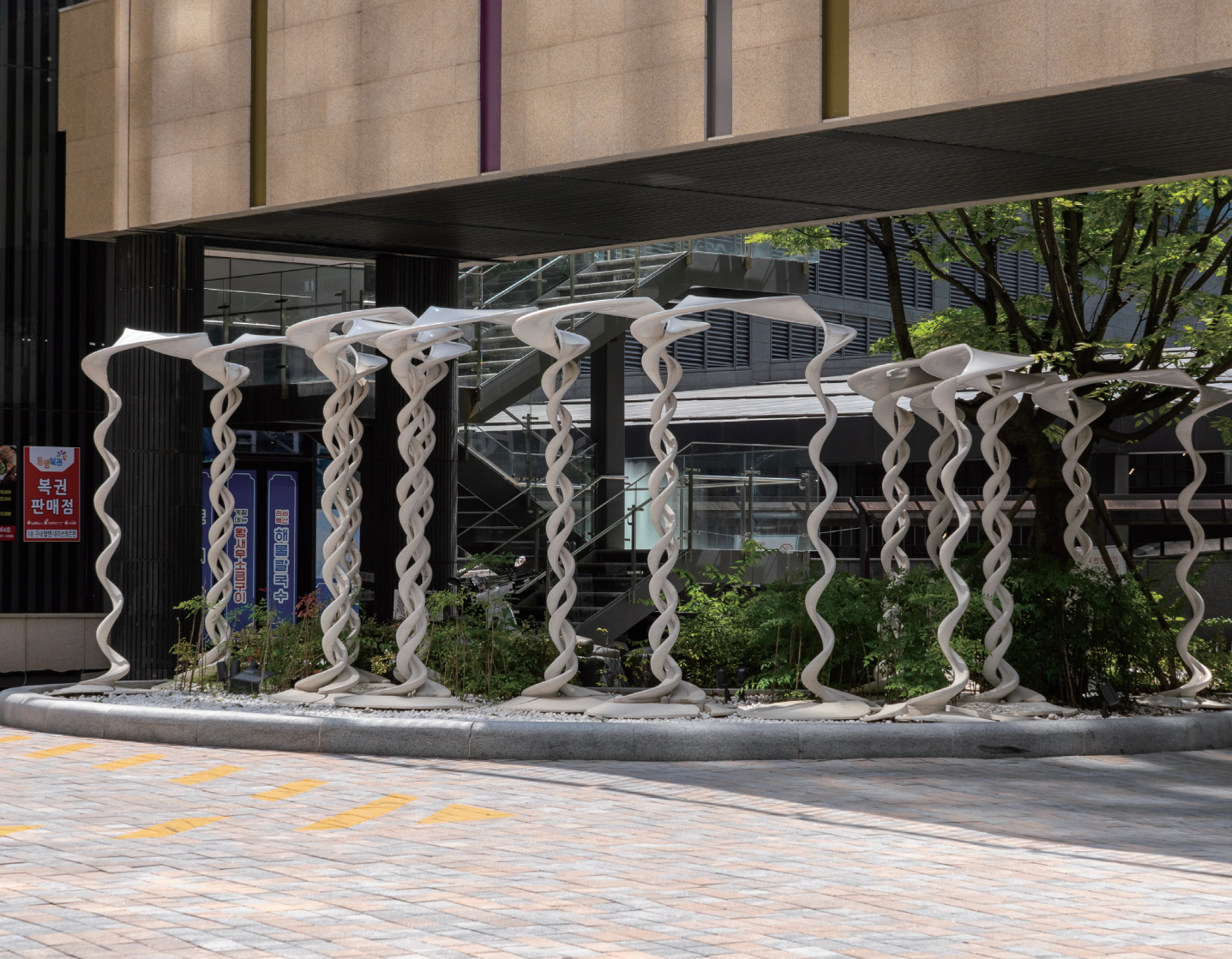
레인 체인 포레스트(Rain Chain Forest)

SoA 조각 2021.06.14.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레인체인’은 본래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비를 모아 바닥으로 흐르게 하는 건축요소입니다.

(203/277)



복권
판매점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수원관

반대로 ‘레인체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루는 건축적 장치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 공예적인 성격을 띠며...

(209/277)



옵티컬 레일(Optical Rail)

김치앤칩스__조각__2021.06.14.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하지만 이 작품은 리서치를 하는 동안 움직이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13/272)



본래 조형물은 움직이는 부피감이 있는 아크릴 렌즈와 정지된 평면의 패턴이미지가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을 시각화하는 ‘키네틱’ 작업입니다.

(215/277)



4개의 모듈로 제작되었음에도 작동 또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유지 관리의 문제 또는 미디어 작업 자체와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221/277)



당신의 날씨(How is your Weater?)

바래(BARE)__조각__2021.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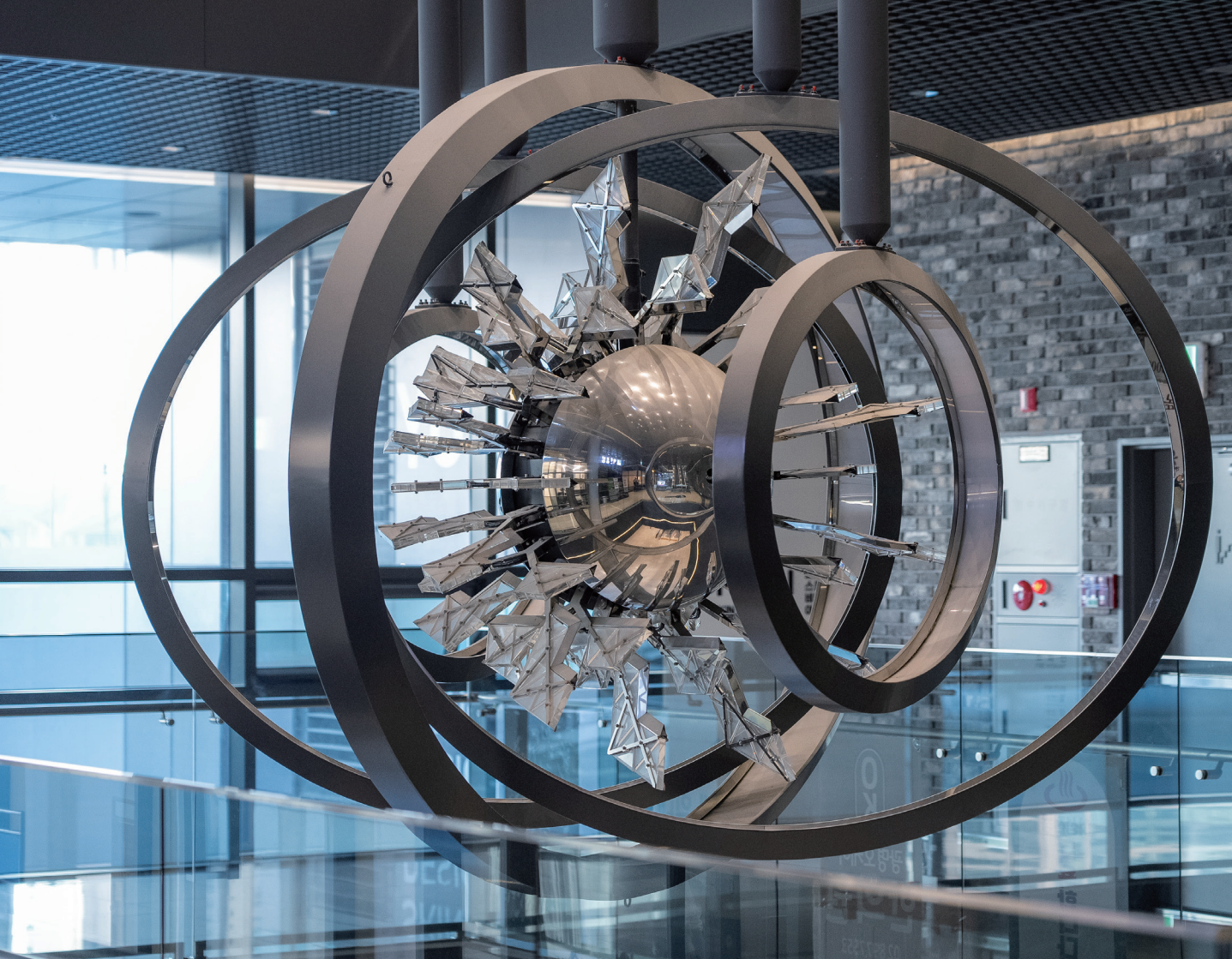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2-3 '유-플래닛'

실내의 공공예술 작품/조형물은 대부분 정적입니다. 하지만...

(224/277)







유플래닛의 리플릿을 참고하면 이 작업은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관람객의 감정을 인지하며,
데이터 값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229/277)



광명역을 가로질러서 가야 하는데요.
지금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라 조금은 혼잡할 수 있습니다.
(237, 238/277)

55 Jorge Manes Rubio <SOL>
5층 양 거든

55 김대성 <리얼 Reverber>
마이엑스 스튜디오 앞

55 이상희 <빛이 닿는 곳>
중앙 광장

55 ANPD <아이스크림>
중앙 광장

55 최문준, 윤지현 <아름다운 세상>
5층 거든

백인화연
비밀가게

U
유용해상도

Y
출발안내

공통처음

55 SoA <래인제인>
사계단 옆

55 BARE <How is Your Weather>
T타워 내로비

55 김지현, 김스 <올리브레일>
T타워 연결 브로지

55 황성훈 <골디락스>
어반트릭스 남측 동로 (여권로변)

55 이종훈 <오늘, 지금, 날>
AK갤러리 수석 동로

55 동승재 <남의 공간>
AK갤러리 수석 동로

55 최민준 <Galaxy Tree>
내사면 1층

당신의 날씨

크리스탈, 스테인리스스틸, 구동장치, LED조명, 카메라
3,000 × 2,200 × 2,700 (H)mm

How is Your Weather? 2021

사람의 감정은 날씨에 비유되곤 한다. 행복하거나 슬픔을 때를 '날씨'이라 일컫는다. 마치 외부 환경의 날씨가 일련고, 우울하거나 슬픔 때를 '날씨'이라 일컫는다. 마치 외부 환경의 날씨가 우리의 일상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누군가의 감정 또한 주변 다른 이들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날씨> How is Your Weather?는 실내공간에 사람들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날씨를 조성한다. 인터랙티브 작품으로서, 관람객의 감정을 인식한 데이터 값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관람객은 작품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며, 작품은 관람객에 따라 다채로운 움직임을 선보이므로써 또 다른 관람객의 감정과 공간 환경에 영향을 준다. 당신의 날씨는 관람객에 따라 변화하는 실재의 얼굴날씨로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작품이다.

작가: BARE



News & Notice

your life

최문선 조각 2018.11.25.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8 (일직동, 광명역센트럴자이) ‘광명역센트럴자이’

건축물 미술작품이 아파트의 외벽에 부착된 형태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투어에 넣고 싶었습니다.

(242/277)



이 작품은 밤이 되면 가운데에 조명이 들어오곤 합니다.
(248/277)



조명과 같은 단순한 전기 사용을 포함하는 작품도 미디어 작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확실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미디어 작품이 공공예술조형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해보고 싶습니다.

(250/277)



Ficus benjamina-Light

원용래__조각__2019.06.27.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5 스마트워크센터 '광명 스마트워크센터'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관리소장님 자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56/277)



Good Luck in 파리

이애리__조각__2019.06.27.

경기 광명시 일직동 515스마트워크센터 '광명 스마트워크센터'

개인 작업에서 작가는 평면 작업을 주로 진행합니다.
(263/277)



개인적으로 큰 입체화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265/277)



긴 시간의 투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7/277)



접근하기

김수현

《캡션되기 | Closed captioning》는 광명역 인근의 공공예술 15점을 참여자들과 살펴보는 프로젝트이다. 《캡션되기》에서 다루는 공공예술은 공공미술포털에 등록된 것으로, 흔히 1% 법이라 일컬어지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에 한한다. 프로젝트에서 구나혜는 참여자들을 인도하며 공공예술 각각의 특징을 전달한다. 참여자들은 도시를 투어하듯 전시의 도슨트를 듣듯 참여해,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던 공공예술에 집중해 보는 경험을 한다.

공공예술의 정의가 추려지지 못했듯, 공공예술에 대한 관점은 제각각 다르다. 공공예술에 대한 여러 관점 중 《캡션되기》는 공공의 접근성 측면에 주목한다. 작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어떤 작품에 접근할 것인가 등 공공예술의 접근성 이슈는 무엇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프로젝트의 제목 《캡션되기》도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 작품의 캡션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캡션은 작품 옆에서 작품의 정보(대체로 작품의 제목, 작가, 제작년도, 재료, 크기 등)를 전달해 관람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오늘날 전시장들은 저시력자를 위한 캡션, 정보 약자를 위한 쉬운 정보 전달 등 다양한 방식의 캡션 전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아쉽게도 공공예술에는 캡션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착되어 있더라도 자연환경에 의해 글자가 지워지고 가려지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읽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존재하지만 읽을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단절을 가져온다. 《캡션되기》에서 만난 <무지개 정원>(2019)의 경우 캡션과 짧은 설명이 부착되어 있다. 캡션이 있지만, 캡션이 보이지 않는다. 작품 하단이자 지면 바로 위에 세워진 캡션은 지면을 향하여 기울어져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캡션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몸을 웅크리듯 숙이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 전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섬세한 캡션 기재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캡션은 이것이 작품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프로젝트에서 구나혜는 직접 일상 속 잊힌 공공예술의 캡션을 재생산해 작품을 작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비단 참여자들에게만 작품을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다. 공공예술 옆에서 흠연하던 사람, 지나가던 행인 등은 공공예술을 살피는 《캡션되기》에 관심을 보였다. 캡션이 존재하지 않는, 지워진, 가려진 공공예술의 움직이는 캡션이 된 프로젝트는 일상 속 잊힌 공공예술과의 접근을 가능케 한 것이다.

어디에 위치하는가

《캡션되기》리플렛의 지도에서 공공예술은 ‘공공의 장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프로젝트는 공공예술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을 강조한다. 작품의 위치는 접근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프로젝트에서 소개된 오피스텔, 타워 등에 위치한 작품들은 건물의 뒤편에 배치되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유동 인구의 접근성도 높지 않게 느껴진다. 나아가 뒤편에 있는 공공예술 작품은 건물의 흡연 장소로 사용되고 쓰레기 처리장과도 인접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의 주변 환경은 여러 사람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와 함께 구성되었지만, 벤치에 앉으면 쓰레기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만남의 광장>(2017)은 진정한 만남을 위한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에 접근하게 할 것인가

《캡션되기》에서는 공공예술 작품이 어떠한 내용을 담았는지도 살핀다. 캡션과 위치로 공공예술을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작품을 접하게 할 것인지 또한 프로젝트의 주요 고민 지점이다.

《캡션되기》는 공공예술이 작가의 기존 작업 맥락 안에 있는지를 탐색한다. 프로젝트는 이케아(IKEA) 광명점 앞에 위치한 신치현 작가의 <생성공간-Horse>(2014)가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유사성이 없단 점을 지적한다. 프로젝트는 다른 이케아에 위치한 공공예술과의 비교를 통해 <생성공간-Horse>가 이케아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케아의 스웨덴 정체성이 드러나는 목각 말 달라호스(dala horse)와 스웨덴어를 작품에 적용하고, 한글도 넣어 이케아 코리아를 부각한 것이다.

광명 유 플래닛(U Planet)에서 《캡션되기》는 태영건설과 기획팀인 팀 팩토리(Team Factory)가 협업한 공공예술 중 <라이트 스피어>(2021), <날씨 걷기>(2021), <오늘, 지금, 달>(2021), <레인 체인 포레스트>(2021), <옴티컬 레인>(2021), <당신의 날씨>(2021)를 소개한다. 작품명에서 유추되듯 유 플래닛에 설치된 공공예술들은 오늘의 날씨를 주제로 한다. 공공예술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시장인 팩토리2와 막집: project space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도큐먼트 : 오늘의 날씨>(2021)라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 큰 고민 없이 설치되는 공공예술의 사례가 상당수인 현실 속 전문 기획팀과 함께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공예술을 설치한 사례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유 플래닛에는 날씨라는 주제에 대한 작가들 각각의

해석이 보여진다. 이와 달리 작가의 생각이나 정체성이 아닌 특정 기업을 전달하는, <생성공간-Horse> 같은 공공예술은 공공의 예술로서 적합한 것일까.

《캡션되기》는 광명시의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 공공예술에 대한 여러 생각에 다다르게 한다. 특히 이케아와 유 플레닛 같은 사례들은 《캡션되기》가 왜 광명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광명역 인근에는 이케아와 유 플레닛이라는 공공예술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례들이 있어 공공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캡션되기》는 직접 캡션이 되어 공공예술에 접근하게 한다. 하지만 단순히 광명역 인근 15점의 작품에 접근해 관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관람객은 공공예술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공공예술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등을 《캡션되기》에서 전반적으로 고민하며 오늘날 우리의 공공예술을 살핀다.



<만남의 광장> 옆 쓰레기장의 모습



스웨덴과 한국을 결합한 <생성공간-Horse>



<라이트 스피어>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총 6회 차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18명의 인원과 투어를 함께했다.

결국 투어는 작업의 감상을 돕지 못했다.

투어 이전에 나는 전시를 하고 싶었다

투어에 대한 꿈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읽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가장 앞에서 걷는 것,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 오는 상황은 학창 시절 급식실 줄 맨 앞에 서거나, 횡단보도를 가장 앞에서 건너며 가까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럿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상상에 무거운 책임감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투어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나의 상상과는 무관하다.

사실 투어는 전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며 경기도 광명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 집과 광명사이의 거리는 시내 교통으로 2시간 30분이 걸린다.
- 작업실과 광명 사이의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여러 지역을 오가며 작업을 하는 삶을 종종 인스타그램으로
엿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2024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땀도 많이 났다.

다양한 조형물/작품에 여과 없이 노출된 문제는 문장이나 정리된 글보다

직접 마주하는게 더 생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보고 싶었다.

참여자들이 투어 이후에도 서로 모르는 그들의 지인과 길을 걸어가면서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바랐다.

대부분의 작업/조형물은 너무 컸고 그것을 만든/제작한/소유한/연관된 사람도 컸다. 업체도 거기에 얹힌 돈들도 컸다. ‘큰’은 벽처럼 의미를 완벽히 가리는 데 성공한 듯했다.

한껏 조형물을 탐방하고 작업실에 돌아오면 고민들로 뒤덮인 작은 덩어리(작업) 들이 있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투어 이전에 나는 전시를 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이유나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놓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공예술에 다가가려는 시도들은 몇 개의
조형물을 분류하고 주장에 맞는 사례를 통해 멋진 결과물을
보여준다. 좋은 논문과 연구의 퀄리티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투
어와 같은 일상적인 형식에 기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나도 인지
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누군가 발견하고 그것이 다르게
 옮겨갈지 모른다는 기대만 바라보며 책임감을 벗어나고자 했다.

고정되지 않은 정보 전달이 필요했다.

투어 이전에 나는 전시를 하고 싶었다.

문화재단은 그 지역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경기도에는 공간이 많지 않고 서울에 거주할 여력은 없다.
광명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작’ 그리고 유 플래닛에 위치하던 ‘오분의 일.
회관이나 갤러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로비 같은 전시장.
가보지 않은 곳들에서의 전시가 상상이 되지 않았다.

투어, 그리고 책자라는 형태의 결과를 가진 기획서에
어떤 힘이 있을지 궁금했다.

광명에 몇 개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에 몇 개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 머리속 ‘공간’ 은 CV에서 몇 년이고 지우지 않을 이력과 연결된다.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스토리로 공유하며, 누구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지 모른다. 그런 솔직한 생각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한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겠지?

rngp222@gmail.com

이 투어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 현실이 되게 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조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작업 과정을 벗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캡션되기>투어 이전에 나는 <전시>를 하고 싶었다.

<캡션되기> 이전에 떨어진 기획서가 있다. 기획서는 비슷하게 투어의 형식을 갖고 있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내 개인 작업과 작품을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기획이었다.

(내)작품이 도시의 곳곳에 놓여지고 그 작업을 투어 하는.

진행하며 가끔 생각이 났다. 왜 그건 안 되었을까?

내 작업이 내가 조사하는 귀엽거나 깨지거나 발랄하거나 더럽거나 멋지거나 고장난 조형물보다 너무 작은 것일까.

(세상에 좋은 건축물미술작품도 많다/많을 것이다.)

4월 이후부터는 모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누군가의 작업을 조사하다 보면 왜인지 처음에 갖고 있던 비판적인 시각도 사라지곤 했는데 그런 순간이 조금은 무서웠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름들도 많았고 여전히 이곳에 왜 있는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 작업들도 많다.

투어라는 방식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광명의) 모든 시민게시판은 열쇠가 하나다.
시민게시판에 게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편하다.
광명에는 총 110개의 건축물미술작품이 있다.
광명역 인근 약 60개의 건축물미술작품을 직접 탐방했다.
15개의 건축물미술작품을 투어에서 돌아보았다.
좋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광명까지 1호선을 타고 제시간에 온 적이 없다.
투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신안산선 공사가 계속되었다.
코레일톡 어플을 통해 KTX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락을 구하는 메일은 읽히지 않았다.
촬영 허가를 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뺑뺑이 돌았다.
조형물을 가끔 만져봤다.
광명이라는 도시를 잘 알게 된 듯한 착각을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들을 찾아보았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정의를 외울 수 있게 되었다.
이케아에서 밥을 자주 먹었다.
한국에는 2024년 기준 4개의 이케아 지점이 있다.
광명 이케아는 바나나 블루베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는다.

2024년 여름은 (무척) 더웠다.
빠르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흡연장소가 많았다.
하루에 만 오천보 이상 걷는 날이 많았다.
투어의 참여자는 여행자보험을 들었다.
다른 조형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상과 마주쳤다.
중간 중간 질문이 감사했다.
참여자가 또렷하게 기억난다.
공개공지는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투어가 시작되면 주변인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길거리는 주말보다 주중이 더 한산하다.
회차를 거둬하면서 실수에 익숙해졌다. 더 잘하게 된 건 없었다.
아무도 작품 제목은 몰랐다.
작가 이름도 몰랐다.
인터넷으로도 찾을 수 없는 (건축물미술작품) 작가도 있다.
이제는 자취를 감춘 작가도 있다.
설치 중인 건물의 건축물미술작품도 공공예술포털에 올라와있다.
투어는 18명의 인원과 공유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
한 시간 이상을 걷는 것은 힘든 일이다.





캡션되기| Closed captioning

2024.08.16. - 2024.09.25.

기획, 진행 _ 구나혜

사진_홍성우

포스터 및 홍보물 _ 김나빈

리뷰_김수현

이 책자는 2024년 모든예술31 <광명_곳곳>에 선정되어

‘광명시, 광명문화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